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상담의 과제*

허철수**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들을 알아보고 이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의 과제들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 고민거리, 갈등의 원인, 가정행복도와 학교만족감, 부적응행동의 이유, 그리고 고민처리와 갈등해결방식 등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 청소년들은 과잉보호로 인한 심리적 낙약함과 좌절감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출국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생활지도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행동이나 갈등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보다 힘있고 건전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문상담기 또는 상담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관련학과 설치 및 주교육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와 상담지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둘째로 각 시군에 1개소씩 학교상담실을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한다.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국외과건 연구 계획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제주대학교 교수

셋째로 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지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로 생활지도, 상담관련 도서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끝으로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고 있는데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사회변화는 중국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직면케 하고 있다(마종범, 2002). 즉 중국 전통적 가치관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 신속한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른 혼란, 기성세대와의 갈등, 치열한 입시경쟁 등은 청소년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55개 소수 민족 중 조선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청소년들 역시 청소년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옥희(2000)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 청소년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외동자녀 문제인데 과잉보호로 인한 심리적 나약함과 좌절감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은 부모출국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자녀들의 학습부진과 포기, 정

서적으로 반항적, 충동적 경향이 높고 우울하거나 심한 소외감을 겪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점수따기와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동목(1999) 역시 외동자녀 문제는 학교교육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 외동자녀의 심리적 특징과 그들에 대한 교육방법의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특히 해외 노동인력 유출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동자녀와 부모출국가정 자녀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감격할 줄 모르고 물건에 대해 아껴쓸 줄 모르며, 일에 대해 힘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억제할 줄 모른다”(박옥희, 2000)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의 산물인 외동의 증가로 전형적인 가족구성 형태는 부부와 한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는 가족계획이 엄격하게 실시됨에 따라 외동을 ‘작은 태양’, ‘어린 황제’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과 온 가족이 자녀 한 명을 중심으로 에워싼 이른바 ‘4·2·1’¹⁾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이다.

현재 중국에는 8,000여만 명의 외동이 있는데, 외동들은 어려서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과잉보호된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에서 매우 취약하고 쉽게 좌절을 느끼고 대인관계와 정서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종범, 2002).

또한 부모출국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들이 자녀교육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돈만 아는 가정’, ‘사랑이 고갈된 가정’, ‘부모 자녀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자녀교육 책임을 저버린 출

1) 4·2·1 시스템은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4)와 외동의 부모(2)가 외동자녀(1명)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려 쉽게 가출하고 점차 폭행,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박옥희,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사상정치 사업은 더 이상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마종범, 2002).

청소년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접근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술의 총화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행동이나 갈등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보다 힘있고 건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변의 와중에서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충격과 적응에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변화된 사회구조와 성격에 맞는 인생관이나 가치관과 삶의 형태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특징들을 알아보고 아울러 이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의 과제들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확산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성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성장하면서 습득된 가치, 태도, 인식, 지각 등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의 영역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가생활, 고민내용과 의논대상, 가정생활, 학업 및 진로, 가치관,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교제, 유해환경, 부적응행동과 원인, 고민해결방법, 주변의 상담실 유무, 고민문제와 상담실 이용 여부 등이다.

2)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 파악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은 어떠한 심리·사회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가치관, 고민거리, 심리적 상태, 가족의 심리적 거리감, 대화의 내용과 정도, 갈등의 원인, 가정 행복도와 학교 만족감, 부적응행동의 이유, 고민처리와 갈등해결 방식 등이다.

3) 청소년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 제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울러 보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담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특징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로서 청소년들은 이행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Richter, 1998).

한국 청소년이나 중국 청소년, 또는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성적 발달의 특징은 거의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 보인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는 활발한 변화와 발달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신체적·심리적 성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Conger & Petersen, 1984). 따라서 이러한 성숙은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서서히 독립하여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된다. 즉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와 역

할, 삶에 대한 의미, 자신의 미래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방황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박아청, 1996).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불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심리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Petersen & Tayler, 1980).

실제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들(Greene, 1990)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정서 혹은 감정의 내용은 성인기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나 차이점은 그러한 감정들을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Booth(1998)는 청소년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강력한 정서적 경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스포츠를 하거나 친구 혹은 신뢰할만한 성인들로부터 위로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을 가하게 됨으로써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아구조의 약화이다(Schave & Schave, 1989).

형식적 조작적 사고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경향, 상상적 청중으로 인해 감정적 반응의 정도는 매우 강력하지만, 이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력은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굴욕감,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Schave와 Shave(1989)는 청소년기 초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아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주된 정서는 수치감이라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내적인 자아구조가 약화되어지고, 심한 수치감을 경험하게 될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외적인 지지이다. 여기에서 청소년기의 부모 또

는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진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접어드는 시기의 심리적 경험과 같이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관적인 구조와 한계를 지어주기를 내적으로 강하게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나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일관적인 구조와 지지를 주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매우 불안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청소년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상담은 전문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 활동이며(Pietrofesa, Hoffman & Splete, 1984),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기초를 둔 과정(Brammer & Shostrom, 1982)으로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관여한다(Carkhuff & Anthony, 1979). 또한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는 것(Krumboltz & Thoresen, 1976)으로서 개인 존중에 기초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협력 활동이다.

이러한 상담의 의미와 특성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발달과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청소년상담은 발달의 특수성, 문제의 특수성, 환경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설기문, 1993;홍강의, 1993).

황응연(1993)은 청소년상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전제로서 청소년상담은 인간발달의 특정한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을 상담의 주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상담의 대상은 그들이 주로 소속하고 있는 기관 또는 위치에 따라 정해야 하고, 청소년상담의 방법과 절차는 그들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나 내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이다.

박제황 등(1993)은 위에서 제시한 성격과 전제를 몇 가지 보완하고

있다.

즉,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발달 과정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의 일차적인 대상은 청소년 자신이지만 청소년 관련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 역시 청소년상담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상담은 청소년이 지니는 정신적 불건강의 치료 및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건강의 예방 및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목적으로 개인상담은 물론 집단상담을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교육과 훈련,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상담은 과거 어느 시기의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인간 내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예방과 개인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활동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연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의 급격한 변화 혹은 다양화, 그리고 특히 가족 교육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갈등 등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정서적 문제는 물론 비행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는 심리자문(상담)이 의료기관과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덕육의 한 부분으로 심리건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마종범, 2002).

중국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의 문제는 주로 보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교 중국 공산당위원회에서 파견한 사상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간부이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전문성 향상이 어렵고 실질적인 전문적인 지도가 미비한 실정이다(마종범, 2002).

본 연구자는 1998년도부터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중범이 지적한대로 학교에서는 심리건강교육이 형식적으로 있을 뿐이며 학생들의 문제해결과 예방 및 성장잠재력 제발을 위한 전문적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소재하는 6개시와 2개 현(군) 중 2개의 시와 1개의 현에 있는 학교 청소년 632명으로 중학교 학생 259명, 고등학교 학생 373명이며 남녀 각각 313명과 319명이다.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대상이 적은 것은 용어와 사고의 차이로 중학생들이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별 분포는 구체적으로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성별·학교급별 조사대상자 분포

단위 : 명(%)

성 별 학교급	남	여	계
중 학 교	126(19.9)	133(21)	259(41.0)
고 등 학 교	187(29.6)	186(29.4)	373(59.0)
계	313(49.5)	319(50.5)	632(100.0)

이 조사에 응한 조선족 청소년은 모두 632명으로, 중학교 학생이 41.0%, 고등학교 학생이 59.0%이며, 남녀 각각 49.5%, 50.5%이다.

2. 조사의 실시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2002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3개 현시를 본 연구자가 현지 방문하여 학교의 협조 하에 직접 실시하였다. 700명(중학교 300명, 고등학교 400명)을 대상으로 전체 회수율은 100%였으나 회수된 응답지 중 관별이 곤란한 일부를 제외하고 632명의 응답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물들과 설문지들을 기초로 하여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물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이 설문지는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외거하여 조사영역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한 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되어 확정된 설문지는 모두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사용된 설문지의 조사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조사영역별 문항 번호

조 사 영 역	문항번호	조 사 영 역	문항번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부적응행동 유형과 원인	18-19
고민거리와 의논대상	5-7	비행경험	20-29
가정생활	8-9	상담실 인지 및 이용 유무	30-31
학업 및 진로	10		
가치관	11		
학교생활	12-13		
친구관계	14-15		
이성교제	16-17		

4. 자료처리

본 조사 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SPSS/PC+를 이용한 통계처리분석을 통해 빈도별 분석을 하였다. 본 설문지 실시는 조사대상들이 문항 중 자기자신에게 적절한 문항에 하나의 답만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 빈도와 %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표집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가족거주 형태, 부모의 학력, 가정생활 수준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1> 가족거주 형태

단위 : 명(%)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부 모	176(68.1)	211(56.7)	387(61.2)
부	33(12.5)	48(12.8)	81(12.8)
모	25(9.7)	54(14.5)	79(12.5)
조부모, 친척 등	25(9.7)	60(16.0)	85(13.5)
계	259(100)	373(100)	632(100)

<표 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632명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중학생인 경우 전체 68.1%에 해당된다. 또한 고등학생인 경우 56.7%에 해당하고 있어서 전체 61.2% 학생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 또는 기타가족과 거주하는 형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38.8%에 이르고 있다.

<표 IV-2> 한부모 또는 기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중·고등학생
이 혼	27(11.0)
외국출국	181(74.0)
국내 먼 곳에 장기 체류	22(8.9)
사 망	15(6.1)
계	245(100.0)

<표 IV-2>는 조사대상자가 한부모 또는 조부모, 친척 등 기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대상자의 74.0%이

해외 노동인력으로 인한 출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의 이혼(11.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부모의 학력 수준

단위 : 명(%)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무응답	계
부	4(6.0)	4(6.0)	137(21.7)	331(52.4)	150(23.7)	4(6.0)	2(0.3)	632(100.0)
모	1(2.0)	10(1.6)	138(21.8)	416(67.8)	61(9.7)	3(0.5)	3(0.5)	632(100.0)

<표 IV-3>은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의 부모 학력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학력은 고졸자가 가장 많으며 아버지(52.4%)보다 어머니(67.8%)가 높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가 23.7%, 어머니가 9.7%이어서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표 IV-4> 가정의 생활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무응답	계
인원	18(2.8)	88(13.9)	461(72.9)	60(9.5)	4(0.6)	1(0.2)	632(100.0)

<표 IV-4>는 가정 생활수준을 조사대상자의 인식수준에서 파악한 것이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83%가 자신들의 가정의 경제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6.7%의 학생들은 자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

고 있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된 11개 영역 31개 문항을 학교급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 IV-5> 본인이 느끼는 고민거리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성	3(2.4)	2(1.6)	3(1.6)	2(1.1)
이성교제	4(3.3)	10(7.8)	15(8.1)	14(7.7)
가정·가족관계	9(7.3)	13(10.1)	23(12.4)	8(4.4)
학업 및 진로	32(26.0)	25(19.4)	44(23.7)	56(30.6)
취업	1(0.8)	1(0.8)	4(2.2)	3(1.6)
친구관계	7(5.7)	11(8.5)	9(4.8)	11(6.0)
심리건강	10(8.1)	3(2.3)	9(4.8)	6(3.3)
성적문제	10(8.1)	11(8.5)	22(11.8)	17(9.3)
여가활동	-	1(0.8)	3(1.6)	2(1.1)
유해환경(비행, 학원내폭력)	6(4.9)	2(0.6)	5(2.7)	2(1.1)
성적	41(33.3)	50(38.8)	49(26.3)	62(33.9)
계	123(100.0)	129(100.0)	183(100.0)	183(100.0)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학교 남학생 33.3%, 여학생 38.8%가 성적을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학업 및 진로문제로도 각각 26.0%, 19.4%가 고민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고등학생들도 성적으로 고민하는 학생은 남학생 26.3%, 여학생 33.9%가, 학업 및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이 남녀 각각 23.7%, 30.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정·가족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중학생 17.4%, 그리고 고등학생 16.8%이다.

구본용(199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중학생들의 고민거리 중 성적(89.6%)이 가장 높으며 고등학생 역시 성적(83.0%)이어서 동양문화권에서는 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IV-6> 고민거리 의는 상대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부모	35(27.8)	33(25.0)	33(17.6)	29(15.6)
친구	53(42.1)	74(56.1)	105(56.1)	121(65.1)
형제·자매	8(6.3)	12(9.1)	5(2.7)	9(4.8)
학교선생님	4(3.2)	-	1(0.5)	1(0.5)
친척	-	-	1(0.5)	-
선·후배	1(0.8)	-	2(1.1)	2(1.1)
조부모	1(0.1)	-	-	-
없다	24(19.0)	13(9.8)	40(21.4)	24(12.9)
계	123(100.0)	132(100.0)	187(100.0)	183(100.0)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42.1%, 56.1%가 친구와 의논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고등학교도 남학생이 56.1%, 여학생이 65.1%에 해당하는 학생이 친구와 의논한다고 하여, 대부분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대는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의논상대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중학교 28.8%, 고등학생 34.3%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7> 요즘 나의 마음 상태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항상 쾌활하고 기분좋다	25(19.8)	22(16.5)	25(13.4)	25(13.4)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다	53(42.1)	57(42.9)	78(41.7)	88(47.3)
담담하다	30(23.8)	25(18.8)	46(24.6)	50(26.9)
아주 갑갑하고 미칠 것 같다	17(13.5)	16(12.0)	28(15.0)	17(9.1)
모든 게 허무하고 죽고 싶다	1(0.8)	13(9.8)	10(5.3)	6(3.2)
계	126(100.0)	133(100.0)	187(100.0)	186(100.0)

요즘 자신의 마음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거나 항상 쾌활하고 기분좋다가 중학생 남녀 각각 61.9%, 59.4%로, 고등학생 남녀 각각 55.1%, 6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 갑갑하고 미칠 것 같아 허무하고 죽고 싶은 학생도 전체 17%에 달하고 있다.

<표 IV-8>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부분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가치관의 차이	5(4.1)	9(6.8)	16(8.6)	25(13.7)
나의 행동을 이해 못함	54(43.9)	53(39.8)	64(34.6)	55(26.2)
성격차이	13(10.6)	13(9.8)	17(9.2)	15(8.2)
대화의 어려움	6(4.9)	11(8.3)	12(6.5)	15(8.2)
무관심	1(0.8)	-	1(0.5)	-
차별대우	4(3.3)	3(2.3)	5(2.7)	3(1.6)
부모님과의 불화	3(2.4)	3(2.3)	-	8(4.4)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지나친 간섭이나 높은 기대	33(26.8)	28(21.1)	58(31.9)	50(27.3)
구타	-	-	1(0.5)	1(0.5)
경제적 문제	4(3.3)	13(9.8)	10(5.4)	11(6.0)
계	123(100.0)	133(100.0)	185(100.0)	183(100.0)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중학생 남녀 각각 43.9%, 39.8%, 그리고 고등학생 남녀 각각 34.6%, 36.2%가 부모님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중학교 남학생 26.8%, 여학생 21.1%, 고등학교 남학생 31.9%, 여학생 27.3%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나 높은 기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허철수의, 1997)에서도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이해부족(26%)과 지나친 간섭과 높은 기대(22.4%)가 부모와의 갈등관계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IV-9> 가장 이상적인 부모상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다정하고 자상한 부모	42(33.3)	32(24.1)	36(19.4)	60(32.3)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부모	11(8.7)	5(3.8)	9(4.8)	7(3.8)
오직 자녀만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18(14.3)	12(9.0)	19(10.2)	7(3.8)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이 있는 부모	2(1.6)	4(3.0)	4(2.2)	5(2.7)
자녀에 대해 참고 인내하는 부모	9(7.1)	3(2.3)	18(9.7)	10(5.4)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	44(34.9)	77(57.9)	100(53.8)	97(52.2)
계	126(100.0)	133(100.0)	186(100.0)	186(100.0)

조선족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를 가장 이상적인 부모라고 여기고 있는 학생이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34.9%, 57.9%,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53.8%, 52.2%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남학생 33.3%, 여학생 24.1%,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19.4%, 32.3%가 다정하고 자상한 부모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표 IV-10>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성적문제	80(63.5)	71(53.8)	87(46.8)	85(46.7)
나의 특성을 모름	26(20.6)	23(17.4)	33(17.7)	27(14.8)
부모님과 의견 차이	11(8.7)	5(3.8)	15(8.1)	14(7.7)
정보부족	5(4.0)	19(14.4)	25(13.4)	34(18.7)
가정형편 어려움	3(2.4)	6(4.5)	18(9.7)	19(10.4)
학교에 대한 불만족	1(0.8)	8(6.1)	8(4.3)	3(1.6)
계	126(100.0)	132(100.0)	186(100.0)	182(100.0)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성적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학생은,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63.5%, 53.8%,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46.8%, 46.7%이었다.

<표 IV-11>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싶은 것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만족스런 결혼	14(11.1)	16(12.0)	10(5.3)	10(5.4)
개인적 자율성	25(19.8)	30(22.6)	29(15.5)	32(17.2)
권력	4(3.2)	3(2.3)	14(7.5)	7(3.8)
사랑, 우정	6(4.8)	11(8.3)	18(9.6)	12(6.5)
정서적 안정	2(1.6)	4(3.0)	7(3.7)	12(6.5)
행복한 가족관계	15(11.9)	18(13.5)	24(12.8)	27(14.5)
매력적인 용모	6(4.8)	3(2.3)	2(1.1)	2(1.1)
건강	6(4.8)	4(3.0)	2(1.1)	3(1.6)
지식	3(2.4)	1(0.8)	3(1.6)	-
만족스런 직업	7(5.6)	5(3.8)	10(5.3)	9(4.8)
재력	1(0.8)	3(2.3)	3(1.6)	4(2.2)
물질	4(3.2)	-	6(3.2)	6(3.2)
정의(부정과 편견없는 세상)	2(1.6)	-	2(1.1)	-
애타심, 봉사	-	1(0.8)	2(1.1)	2(1.1)
인정, 명예	1(0.8)	6(4.5)	4(2.1)	3(1.6)
지혜	1(0.8)	3(2.3)	3(1.6)	9(4.8)
정직	3(2.4)	4(3.0)	6(3.2)	10(5.4)
건강한 사람의 관계	3(2.4)	1(0.8)	4(2.1)	3(1.6)
직업적 성취	23(18.3)	20(15.0)	38(20.3)	35(18.8)
계	129(100.0)	139(100.0)	187(100.0)	186(100.0)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싶은 항목에 대하여,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19.8%, 22.6%가 개인의 자율성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직업적 성취를 남녀 각각 18.3%, 15.0%가 선택

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남녀학생 각각 20.3%, 18.8%가 직업적 성취를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개방 정책이 가시화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많은 인구 중에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변 학교청소년들은 직업적 성취에 높은 이상과 가치를 두고 있다.

<표 IV-12>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아주 만족한다	29(23.0)	27(20.3)	16(8.6)	12(6.5)
만족하는 편이다	47(37.3)	56(42.1)	78(41.9)	103(55.4)
그저 그렇다	38(30.2)	36(27.1)	56(30.1)	49(26.3)
다소 불만이다	9(7.1)	10(7.5)	20(10.8)	17(9.1)
아주 불만이다	3(2.4)	4(3.0)	16(8.6)	5(2.7)
계	126(100.0)	133(100.0)	186(100.0)	186(100.0)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60.3%, 62.4%가,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50.5%, 61.9%가 만족하거나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급학교에 갈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학교생활에 가장 불만족한 이유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학교시설 미비	20(16.5)	17(13.8)	36(20.3)	19(11.0)
입시위주의 교육방식	40(33.1)	47(38.2)	78(44.1)	101(58.4)
선생님이 싫다	12(9.9)	6(4.9)	12(6.8)	7(4.0)
반친구들이 싫다	18(14.9)	18(14.6)	8(4.5)	9(5.2)
학교가 마음에 안든다	3(2.5)	3(2.4)	17(9.6)	15(8.7)
학교주변환경이 불만족(폭력학생 및 유해환경)	28(23.1)	32(26.0)	26(14.7)	22(12.7)
계	121(100.0)	123(100.0)	177(100.0)	173(100.0)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중학교 남학생 33.1%, 여학생 38.2%가, 고등학교 남학생 44.1%, 여학생 58.4%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표 IV-14>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행동 방식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그냥 참고 모른척 하거나 외면한다	36(28.6)	26(19.5)	40(21.4)	39(21.0)
위험을 하거나 주먹다짐을 한다	11(8.7)	5(3.8)	9(4.8)	2(1.1)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64(50.8)	71(53.4)	124(66.3)	119(64.0)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제3자, 편지 등)	15(11.9)	31(23.3)	14(7.5)	26(14.0)
계	126(100.0)	133(100.0)	187(100.0)	186(100.0)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50.8%, 53.4%, 그리고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66.3%, 64.0%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중학생 30.1%, 고등학생 24.1%가 친구와의 갈등문제를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표 IV-15> 친구들과 사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아무런 문제없이 잘 어울린다	34(27.0)	35(26.9)	45(24.2)	58(31.2)
인기나 호감도 부족	14(11.1)	15(11.5)	20(10.8)	11(5.9)
열등감	6(4.8)	2(1.5)	10(5.4)	3(1.6)
성격차이	52(41.3)	60(46.2)	65(34.9)	76(40.9)
인간관계의 방법 및 기술	5(4.0)	6(4.6)	23(12.4)	23(12.4)
학교성적 차이	12(9.5)	9(6.9)	9(4.8)	4(2.2)
생활수준 차이	3(2.4)	3(2.3)	14(7.5)	11(5.9)
계	126(100.0)	130(100.0)	186(100.0)	186(100.0)

친구들과 사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41.3%, 46.2%가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대답하였고, 고등학교 역시 남학생 34.9%, 40.9%가 성격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하였다.

<표 IV-16>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매우 바람직하다	9(7.1)	5(3.8)	23(12.4)	18(9.7)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63(50.0)	70(52.6)	117(63.2)	100(53.8)
그저 그렇다	36(28.6)	36(27.1)	40(21.6)	59(31.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18(14.3)	22(16.5)	5(2.7)	9(4.8)
계	126(100.0)	133(100.0)	185(100.0)	186(100.0)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57.1%, 56.4%가, 고등학교 남학생 75.6%, 여학생 63.5%가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순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여자는 결혼전 육체적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12.3)	22(18.0)	29(16.5)	54(29.5)
남녀 모두 결혼전 육체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46(43.4)	56(45.9)	54(30.7)	80(43.7)
남자는 별 상관없다	15(14.2)	4(3.3)	19(10.8)	2(1.1)
사랑한다면 결혼전이라도 성관계 가질 수 있다	18(13.2)	26(21.3)	69(39.2)	44(24.0)
해장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14(13.2)	14(11.5)	5(2.8)	3(1.6)
계	106(100.0)	122(100.0)	176(100.0)	183(100.0)

순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43.4%, 45.9%, 고등학교 여학생 43.7%가 남녀 모두 결혼전 육체적 순결을 지

켜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고등학교 남학생 39.2%는 사랑한다면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성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이다.

<표 IV-18>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행동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청소년 본인	30(24.6)	41(31.8)	46(25.0)	47(25.7)
가정	17(13.9)	25(19.4)	30(16.3)	34(18.6)
학교	14(11.5)	8(6.2)	13(7.1)	6(3.3)
사회	41(33.6)	44(34.1)	80(43.5)	85(46.4)
친구	17(13.9)	11(8.5)	12(6.5)	11(6.0)
국가	3(2.5)	-	3(1.6)	-
계	122(100.0)	129(100.0)	184(100.0)	189(1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장 큰 원인을,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33.6%, 34.1%가, 그리고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43.5%, 46.4%가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본인(중학교 56.4%, 고등학교 50.7%)에게 돌리고 있다.

<표 IV-19>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이유

단위 : 명(%)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친구들로부터의 소외	7(5.9)	14(10.7)	15(8.2)	14(7.6)
학교폭력	16(13.4)	10(7.6)	14(7.7)	3(1.6)

문항 \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주위의 불량교우로 인해	33(27.7)	44(33.6)	44(24.0)	49(26.5)
부모와의 마찰	6(5.0)	8(6.1)	13(7.1)	9(4.9)
교사와의 갈등	4(3.4)	6(4.6)	5(2.7)	9(4.9)
형제간의 갈등	1(0.8)	-	-	-
이성교제로 인한 문제발생	4(3.4)	7(5.3)	8(4.4)	4(2.2)
불량싸움 가입	7(5.9)	4(3.1)	13(7.1)	6(3.2)
성적부진	15(12.6)	18(13.7)	33(18.0)	30(16.2)
공부에 대한 관심 결여	23(19.3)	20(15.3)	36(19.7)	61(33.0)
대인기피	3(2.5)	-	2(1.1)	-
계	119(100.0)	131(100.0)	183(100.0)	185(100.0)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학교 남녀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 각각 27.7%, 33.6%, 24.0%가 주위의 불량교우 때문이라고 대답한 반면, 고등학교 여학생 33.0%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중국 연변지역에서는 학교주변에 불량집단이 있어서 등하교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경향이 많아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교육당국에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처럼 검찰과 경찰이 관심있게 지도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체제가 되어있지 않다.

<표 IV-20> 비행경험

단위 : 명(%)

문항		구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가 출	자주 있다			4(3.3)	2(1.5)	5(2.7)	-
	한두번 있다			14(11.4)	12(9.1)	30(21.0)	15(8.1)
	없다			105(85.4)	118(89.4)	142(76.3)	171(91.9)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자 살 충 동	자주 있다			7(5.6)	11(8.3)	7(3.8)	4(2.2)
	한두번 있다			28(22.2)	51(38.3)	53(28.6)	57(30.6)
	없다			91(72.2)	71(53.4)	125(67.6)	125(67.2)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자 살 기 도	자주 있다			3(2.4)	3(2.3)	6(3.3)	1(0.5)
	한두번 있다			10(8.0)	11(8.3)	12(6.6)	5(2.7)
	없다			112(89.6)	119(89.5)	163(90.1)	180(96.8)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폭 행	자주 있다			16(12.7)	2(1.5)	27(14.4)	1(0.5)
	한두번 있다			77(61.1)	12(9.0)	108(57.8)	24(12.9)
	없다			33(26.2)	119(89.5)	52(27.8)	161(86.6)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도 박	자주 있다			3(2.4)	-	29(15.6)	1(0.5)
	한두번 있다			25(20.2)	9(6.9)	60(37.1)	30(16.3)
	없다			96(77.4)	121(93.1)	88(47.3)	153(83.2)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절 도	자주 있다			4(3.2)	2(1.5)	6(3.2)	-
	한두번 있다			14(11.1)	5(3.8)	57(30.5)	14(7.5)
	없다			108(85.7)	126(94.7)	124(66.3)	172(92.5)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기 문 과 피	자주 있다			4(3.2)	-	11(5.9)	4(2.2)
	한두번 있다			36(28.8)	17(12.8)	75(40.9)	26(14.0)
	없다			85(68.0)	116(87.2)	99(53.2)	156(83.9)
	계			123(100.0)	132(100.0)	186(100.0)	186(100.0)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음주	자주 있다	7(5.7)	4(3.1)	43(23.6)	12(6.5)
	한두번 있다	38(31.1)	27(20.8)	86(47.3)	90(48.4)
	없다	77(63.1)	99(76.2)	59(29.1)	84(45.2)
계		122(100.0)	130(100.0)	182(100.0)	186(100.0)
흡연	자주 있다	9(7.3)	1(0.8)	39(21.0)	1(0.5)
	한두번 있다	35(28.5)	7(5.3)	71(38.2)	13(7.0)
	없다	79(64.2)	123(93.9)	76(40.9)	172(92.5)
계		122(100.0)	130(100.0)	182(100.0)	186(100.0)

<표 IV-20>은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가출경험은 중학생의 경우 14.3%, 고등학생인 경우 18.8%가 가출해 본 경험이 있으며 고등학교 남학생이 가장 높다.

중학생 37.5%, 고등학생 32.6%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자살기도 경험에 대해서는 중학생 11.7%, 고등학생 7.0%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중학생이 41.3%, 고등학생이 42.99%가 주먹으로 싸움을 했던 경험이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폭행경험이 매우 높다.

중학생 14.6%, 그리고 고등학생 34.99%가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절도 경험은 중학생이 9.7%, 고등학생이 20.6%로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절도경험이 매우 높다.

기물파괴경험은 중학생 22.1%, 고등학생 31.5%이다.

술을 마셔본 음주경험은 고교 남학생 70.9%, 여학생 54.8%이 가장 높은 음주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 조사대상 여학생의 절반이 넘게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중학생 20.5%, 고등학생 33.4%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50% 이상이 담배를 피웠거나 피우고 있다.

이상에서 청소년비행문제를 알아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안에 따라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비율에 차이가 있다. 즉, 가출경험과 음주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자살충동, 절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높은 반면 폭행, 기물파괴, 흡연 등은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이한 현상은 중국 조선족 여학생들은 한국 여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표 IV-21> 상담실 설치 시 상담실 이용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그렇다	75(65.8)	97(77.6)	117(66.5)	140(77.8)
아니다	39(34.2)	28(22.4)	59(33.5)	40(22.2)
계	114(100.0)	125(100.0)	176(100.0)	180(100.0)

만일 주변에 상담실이 설치된다면 상담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학교 남녀학생 각각 65.8%, 77.6%가, 고등학교 남녀학생 각각 66.5%, 77.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표 IV-22> 상담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문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	11(11.8)	15(16.0)	19(15.4)	15(14.7)
시간적 여유 없음	7(7.5)	5(5.3)	15(12.2)	8(7.8)
상담효과에 대한 부정적 생각	13(14.0)	21(22.3)	24(19.5)	21(20.6)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13(14.0)	17(18.1)	34(27.6)	31(30.4)
문제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9(9.7)	8(8.5)	8(6.5)	13(12.7)
기타	40(43.0)	28(29.8)	23(18.7)	14(13.7)
계	93(100.0)	94(100.0)	123(100.0)	102(100.0)

상담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중학생인 경우 상담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17.6%) 때문이며 고등학교 남학생 27.6%, 여학생 30.4%는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V. 조선족 청소년상담의 과제

현재 조선족 청소년들은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는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나친 점수 추구로 학생들의 정신부담이 과중되어 있으며, 이혼율 상승과 부모출국가정의 증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부재 등 수많은 외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 청소년들은 해결해야 될 심리·사회적 과제도 많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장하려는 청소년의 내적인 욕구와 사회와 문화권에서 바라는 성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충돌하게 마련이다. 자신의 자주성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청소년과 이에 맞서 규격화된 성인의 역할이나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 사이에 마찰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것들이 내면화되어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지내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체제와 교육 방법, 그리고 과대규모 학교와 학급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발달과제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해가 되고 있어서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 청소년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담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강동목, 1999; 박옥희,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상담활동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시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문상담가 또는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상담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술의 총화이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변대학교 사범학원에 상담관련학과를 개설토록 하여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연변주 교육학원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심리건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상담교사연수를 시키도록 한다. 또한 사회교육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서 주 교육학원에 단기 상담자 양성과

정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현재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98년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상담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에서 2명이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미 1명은 졸업한 바 있고, 2003학년도에도 2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둘째로 청소년상담실이 각 현시 학교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내외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마땅한 대상도 장소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각 현시 학교에 1개소씩 개설하여 시범 운영토록 한다.

상담인력은 그 동안 단기상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며, 이들이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훈춘시청소년상담실이 훈춘시 교원연수학교에 2000년도에 개설되고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과 자매결연을 맺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변대에도 MBTI 연구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담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지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 가정은 부모출국가정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학생지도문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생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들은 현재 각급학교에서 학습문제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특별지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

넷째로 상담관련 도서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상담에 대한 요구와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담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는 곧 상담관련 도서와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상담관련 도서와 자료를 통해 상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지사에서는 현지를 방문하고 연변 주 교육학원과 훈춘시청소년상담실에 500여권의 상담관련도서를 기증한 바 있으나 각 현시 학교에는 상담관련 도서나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상담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된다.

끝으로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교사이자 상담가인 셈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수준이 자녀들의 성장력 개발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모의 올바른 인식과 자녀지도방법은 자녀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녀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조선족 가정에서 2명까지 자녀를 둘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가정에서 1명의 외동자녀를 두고 있어서 거의 맹목적으로 과잉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기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과 자료 또한 매우 빈약하다.

이를 위해서 98년도부터 훈춘시를 시작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도움으로 도서지원과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동목(1999). 21세기 중국 학교교육의 전망과 과제. 21세기 학교교육의 전망과 과제. 한·중·일 학술세미나 자료, 43~72.
- _____(2000). 21세기 중국 청소년지도의 문제에 대한 탐구.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지도.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자료, 3~21.
- 구본용외(1993). 청소년문제와 상담실태 분석.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마종범(2002). 중국 대학상담 발전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아청외(1996). 청소년발달상담.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옥희(2000). 청소년 문제의 특징 및 주요원인.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지도.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자료, 25~39.
- 박재황외(1997). 청소년단기상담.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오치선외(1997). 한·중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4(1). 한국청소년학회, 107~127.
- 이해재(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7(1), 한국청소년학회, 69~89.
- 허철수(1996). 청소년상담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청소년상담 발전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상담학 세미나 자료, 107~146.
- 허철수외(1997). 청소년의식조사 연구. 제주도.
- 홍강의(1993). 청소년상담의 이론적 경향 고찰 : 치료적 관점. 청소년상담연구, 1권 1호. 청소년대화의광장, 41~55.
- 황응연(1993). 청소년상담의 성격과 학문적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1권 1호. 청소년대화의광장, 3~17.

- Booth, C. M.(1998). The development of affect. In L. T. Flaherty, & R. Sarles(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 3. New York : Jong Wiley & Sons, Inc.
- Conger, J., & Petersen, A.(1984). Adolescence and Youth :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Changing World* New York : Harper and Row.
- Petersen, A. C. & Taylor, B.(1980). The biological approach to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Pietrofesa, J. J., Hoffman, A., & Splete, H. H.(1984). *Counseling* : Anintroduc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Schave, D., & Schave, B.(1989). *Early adolescence and the Search for Self*. New York : Praeger.

ABSTRACT

The Psychological · 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Chinese Youth on Yanbian Area in China,
and the Tasks of Counseling

Hur, Chul-Soo*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Chinese Youth on Yanbian Area in China. It is to help solving the problems which now they are mentally and socially facing, suggesting tasks of counseling which is necessarily required to apply positively the counseling activities into teaching practices.

According to the research, we found the current adolescences' conditions of identity, worries, satisfactional degrees to family lives and to school lives, reasons of apprehensions, maladjustments, the ways of treating their difficulties, and solving their mental crisis.

The Korean-Chinese Youth in Yanbian Area are difficult in making proper pers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the psychological feebleness from overprotectiveness of their parents. It is the remarkable problem that the family number of their parents' leaving their country is increasing, which makes many troubles in the proces

sing of "living guidance".

The research suggest concrete tasks of counseling, which is

* Professor, Cheju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youngsters' psyc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It will be able to be useful for the Youth to overcome, and solve spontaneously their facing problems of their abnormal conducts and complicated conditions, and finally be able to make their sound and healthy lives.

To begin with, establishing more concerning departments of university, institutions, study and training programs which are leaded by this graduated school to educate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ounseling teachers.

And it is need to establish consultation office in a school of each province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of the affirmative effect of counseling.

The next our suggestion is to investigate exact conditions of the Youth, and to prepared practical guidance strategies.

A variety kind of books and data for the activities of living guidance, and counseling are necessarily needed.

Finally, the persistent teaching courses for the parent should be performed.